

## 표준전문가 9명 IEC Award 수상

국내 표준 전문가 9명이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가 시상하는 <IEC 1906 Award>를 수상하게 됐다고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7월19일 발표했다.

IEC는 2005년부터 10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이 상을 만들어 매년 국제 표준화에 기여한 전문가들을 뽑아 시상하고 있다.

2011년에는 산업자동화 통신분야의 홍승호 한양대 교수, 태양광 에너지 분야의 김영록 헥스파워시스템기술 연구소장, 재활용 환경 표준화 분야의 이화조 영남대 교수 등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밖에 이재호 서울시립대 교수와 최상미 전자산업진흥회 팀장, 안희성 기초전력연구원 팀장, 조미령 한국 조명연구원 팀장, 김재현 한국기계연구원 선임 연구원, 신형섭 안동대 교수 등도 상을 받는다.

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는 2011년 총 124명의 수상자 중 9명을 배출해 일본, 영국, 미국, 독일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화학저널 2011/07/19>